제2순환도로 통행료 4월부터 인상

'돈먹는 하마路' 대책 시급하다

광주시의회 "市, 운영권 매입 나서야"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통행료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순환도로의 재정보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2순환도로 운영권자에게 지급하는 재정보전금이 지난 한해 동안만 무려 200억원이 넘는 등 매년 급증함에 따라 광주시가 답보상태에 빠진 제2순환도로 운영권 매입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16일 "제2순환도로의 민자구간 통행료를 오는 4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형차 요금이 1구간(두암IC-지원IC·14.23㎞) 은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3-1구간(효덕IC-풍암지구·3.53㎞)은 90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시는 제2순환도로 통행료를 개통 이후 한차례도 인상하지 않았지만,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올해 33억원의 추가 재정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통행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부담해야할 재정보전금은 매년 급증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시가 통행량 부족에 따른 민자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근거가 되는 예측 통행량이 크게 빗나간 탓이다.

당초 추정 통행량은 광주시의 도시기본계획상(1989년 기준)의 인구 지표(2001년 180만명, 2006년 209만명)와 자동차 대수(2001년 51만대, 2006년 61만대)를 기초로 산출됐다.

그러나 지난 2009년 말 기준 광주시 인구는 142만명으로 당초 추정치의 70% 수준이며, 자동차 대수도 45만대로 73%선이다.

이로 인해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일평균 통행량은 예상치의 40~50%선에 그치고 있다. 시가 부담하는 적자보전액도 제1구간이 개통 첫해 60억원, 3구간은 72억원으로 민자도로 총 적자보전액은 132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두 구간을 합쳐 205억9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서는 광주시가 재정적자분을 시민들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운영권 매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말 맥쿼리측에 제2순환도로 관리운영권 매입을 위한 협상을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제2순환도로 관리·운영권자인 맥쿼리측이 공식 협상에 나서지 않는 등 답보상태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 유재신 의원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하면 '공공 이익에 필요한 경우 지정 취소 등 공익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광주시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맥쿼리가 국내에서 16개 민자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른 자치단체와의 공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2006년 말부터 맥쿼리측과 재정보전금 책정 기준 조정을 위한 재협상에 나섰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운영권 매입을 선언했다.

시 관계자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를 벗어나 제2순환도로 운영권자인 서울 본사측과 접촉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제2순환도로 통행수입 및 재정보전금현황 (단위:백만원)

1구간 (두암IC~지원IC)

구분	'05	'06	'07	'08
예상액	23,970	25,572	27,581	29,954
실수입	11,785	11,906	11,772	11,435
보전액	8,589	9,993	11,671	14,026

3-1구간 (효덕IC~풍암지구)

구분	'05	'06	'07	'08
예상액	12,841	13,678	14,499	15,596
실수입	4,530	5,067	6,513	7,472
보전액	7,026	7,243	6,534	6,564

광주시 제2순환도로 3-1구간(효덕IC-풍암지구) 송암요금소 전경. 이 구간은 개통 첫 해인 지난 2004년 통행량이 추정치(4만388대)의 41%(1만7천대)를 밑돈데 이어 해마다 통행량이 급감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車 털이범 설친다

돈·내비게이션 등 닥치는대로 훔쳐가

광주 도심 주택가 등지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차량 유리창만 부수면 내부의 금품 등을 훔치기 쉬운데다 단시간 내에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털이범들은 열쇠가 꽂혀 있거나 경보장치가 허술한 차량만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광산경찰은 16일 열쇠가 꽂힌 차량만을 상습적으로 훔친 김모(36·광산구 월곡동)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3일 새벽 1시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이모(41)씨의 고급 승용차를 훔쳐 타고 가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승용차 6대(시가 3천5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차량에 열쇠가 꽂힌 고급 승용차만을 골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달 2일과 25일에도 도심 주택가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돈과 물품(내비게이션·디지털카메라·노트북 등)을 훔친 이모(29·서구 농성동)씨 등 2명과 황모(52·남구 월산동)씨가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 관계자는 "차량 안에 현금과 귀중품을 두지 말고 인적이 드물거나 어두운 골목길엔 가급적 주차를 피하는 게 좋다"며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차량 안에 경보장치를 설치해 두는 것도 범죄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문맹 농민 속여 4천만원 갈취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재판에 이기게 해주겠다"며 글을 모르는 농민을 속여 수천만원대 돈을 가로챈 최모(39)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2006년 3월께 한모(40·농업)씨에게 "고소사건을 해결해주고 손해배상금 1억7천만원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청탁비 등 명목으로 20여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임낙평 대표 폭행 사과하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회견

5월단체에 재발방지 촉구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단협)가 16일 옛 도청별관 철거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임낙평 시단협 상임공동대표를 폭행한 5월단체에 대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단협은 이날 오후 광주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 대표는 오랫동안 5·18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별관 존치문제에서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고 인격모독을 가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광주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대표는 5·18기념재단 이사로서 도청 별관을 보존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 반대의 입장을 견지해 왔던 점을 돌아봐야 한다"면서 "우발적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향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로가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일부 5월단체 회원들은 지난 13일 오후 임 대표를 천막으로 끌고 가 10여분간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 3명 총경 승진

경찰청, 63명 인사

경찰청은 16일 전남지방경찰청 김근 인사계장과 이명호 정보2계장, 광주지방경찰청 임광문 인사계장 등 63명을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로 선발했다. 〈인사명단 16면〉

이번 인사는 개개인의 업무 성과와 직무 수행능력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특히 동료들의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12년간 여성 3명 농락한 '카사노바'

상나팔

○…결혼을 빌미로 12년간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돈을 뜯어온 50대 무직자가 경찰서행.

○…나주경찰은 16일 건설회사 사장 행세를 하며 여성 3명을 농락한 김모(52)씨를 혼인빙자간음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김씨는 1995년 7월께 나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A씨에게 독신이라며 결혼을 약속해 8천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7년까지 12년간 여성 3명에게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1999년 재혼해 부인과 4명의 자녀까지 두고도 이들 피해 여성에게서도 3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광주·전남 청소년 2명 중 1명 "술 마셔봤다"

복지부 조사, 매년 급증 … 흡연율은 14.9%

광주·전남지역의 청소년 2명 중 1명 이상은 술을 마신 경험이 있으며, 10명 중 1명 이상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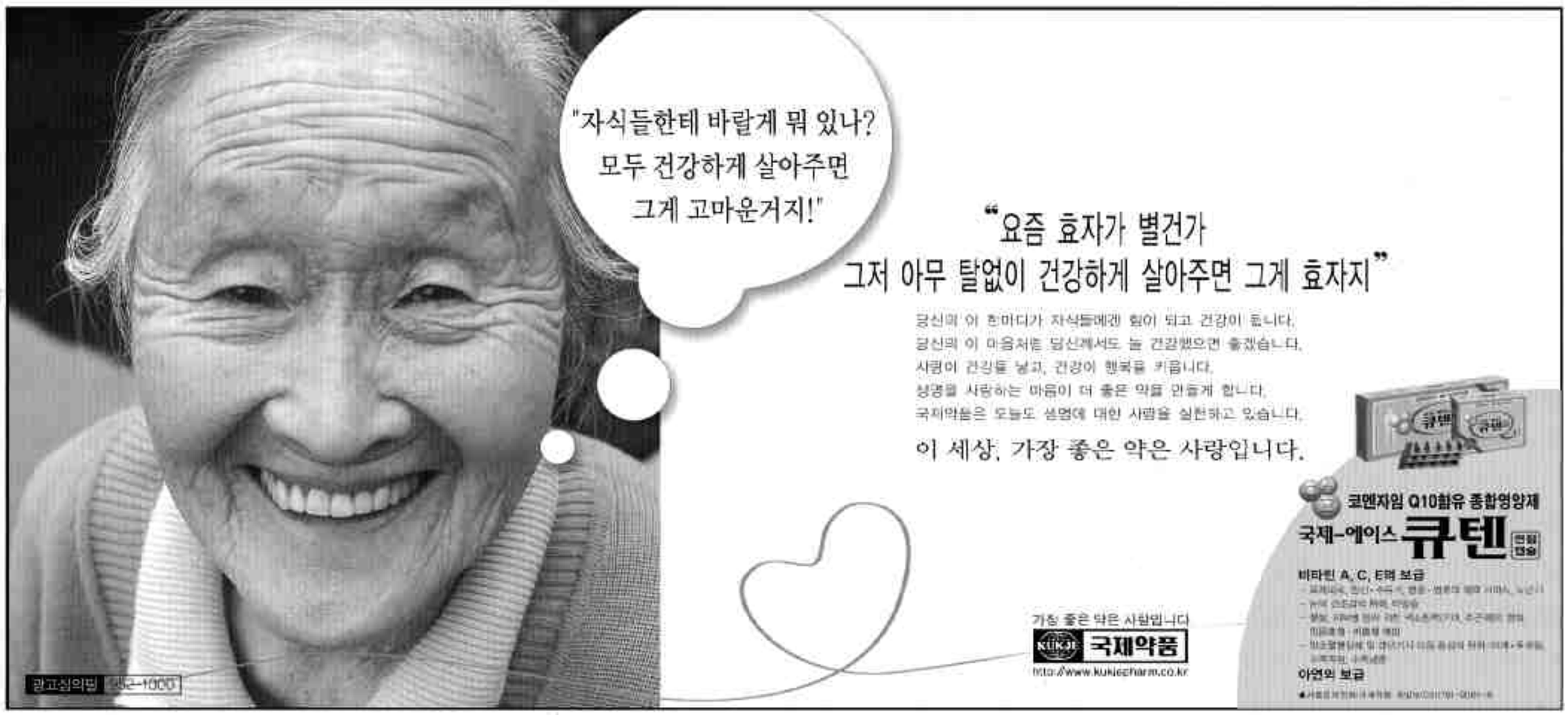
1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전남 중·고생들의 음주율은 각각 53.6%, 52.2%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년간 지역 청소년 2명 중 1명 이상은 음주경험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술을 마시는 청소년이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의 경우 청소년 음주율이 53.7%로, 2007년보다 7.1%포인트나 높아졌다.

광주·전남은 또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지난해 청소년 흡연율이 14.9%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남(16.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남도 흡연율이 10.5%로 나타나 지역 중·고생 10명 중 1명 이상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광주·전남 중고생 1천43명 등 전국 1만4천7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100명 중 4명 정도(3.7%)였고, 성매매를 제안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5.3%에 달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